테마칼럼 | 문학과 사회

내가 서울이 그리울 때

최영미

“ 기계 싫어하고 전자파 싫어하고 광고 싫어하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게 변하고 있다. 전기와 전파로 포위되어 욕이 절로 나온다. 오, 망할 놈의 첨단기술이여. ”

요즘은 어딜 가든, 은행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길가에서도 텔레비전을 피하기가 힘들다. 나처럼 기계 싫어하고 전자파 싫어하고 광고 싫어하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게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 어쩌다 서울에 가면 전철 안에서 한 칸에 한 대로는 모자라 천정과 벽에 이중삼중으로 설치된 TV와 광고판에서 쏘아대는 전자파가 싫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자리를 옮겨보지만, 사방이 전기와 전파로 포위되어 욕이 절로 나온다. 오, 망할 놈의 첨단기술이여, 삼성과 LG에 접수된 대한민국이여.

그런데 초현대의 기술과 자본에 점령당한 수도의 한복판에서도 지상을 달리는 버스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그놈의 요술상자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호반의 도시를 접수했다. 얼마 전부터는 춘천의 시내버스들에 텔레비전이 부착되어 그 요란한 소음과 전자파를 피하느라 내 이마가 찌푸려진다. 그처럼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위협하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혼자 분개하며 속을 끓여봤자 아무래도 먹히지 않을 요구를, 광주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털어놓는다. 춘천시에 부탁하오니 제발 버스에 붙은 텔레비전을 제거해주시기를.

우리집의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거리의 모퉁이에 시를 홍보하는 천막이 나부낀다. 시처럼 아름다운 도시, 희망이 물처럼 흐르는 도시를 홍보하는 글자판은 크기만했지 전혀 시적이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꼭 그렇게 크게 번쩍번쩍한 글씨로 써붙여야 하나. 아! 이 촌스러움을 어찌할꼬.

춘천으로 이사온 지 벌써 여섯 달째이지만 아직도 적응이 덜 되어 가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아침에 버스 타고 시내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버스기사로부터 자기가 아침에 나를 태웠다는 말을 들을 때, 좁아터진 이 바닥에 놀라며 나는 서울이 그립다.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힐긋힐긋 백미러로 나를 훔쳐보며 여기 사람 아닌 것 같다, 남편이 (춘천으로) 발령났냐는 둥 귀찮게 말을 붙이는 기사아저씨의 끈적한 수다를 능란하게 넘길 여유가 내겐 없다.

여기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아주 좁다. 어느 날인가 길을 걷는데 웬 여자가 나를 불러세우더니 이야기 좀 하잔다. 왜요? 아, 거기 인상이 참 좋아요. 복이 많이 들어올 상인데 남한테 주지를 않아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그리고 내 갈길을 가려는데 그녀가 또 ‘이봐요. 잠깐 말 좀 하자니까요’라며 협박할 듯 기세등등한 목소리와 눈빛으로 나를 막아선다. 그러더니 바짝 내쪽으로 접근해 내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닌가.

순간 내 속에서 경보벨이 울렸다. 약간 맛이 간 사이코들에게는 세게 대응하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사람 좋게 웃으며 싹싹 빌 듯 지금 무지 바쁘다고 변명한 뒤에 돌아서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 정신나간 여자가 혹시 쫓아올까봐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내게 지나치게 접근하는 그들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하는데, 낯선 곳으로 이사와 너무 긴장한 탓에 마음이 약해져 여러번 불쾌한 일을 자초했다. 수영장에서 내게 물안경을 빌려달라는 젊은 여자에게 마지못해 내 물건을 내주었다 나중에 버린 적도 있다. 내게 안경을 돌려주며 ‘근데 알이 흐려서 잘 안 보였어요’라고 천연덕스레 말하는 여자의 기에 눌린데다 위생상의 이유로 나는 안경을 버렸다. 내 몸의 일부인 그것도 아주 예민한 부분인 눈에 다른 사람의 손때를 묻히다니. 공중수영장에서 흔히 발병하는 눈병도 걱정이거니와 정체불명인 그녀의 눈에 닿았던 물건을 계속 쓰고 싶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집에서도 나의 사생활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집 현관문의 벨이 두 번 울렸다. 소독하는 아저씨를 집안에 들이기 싫어 그냥 돌려보내며, 나는 안심한다. 드디어 최영미가 다시 까탈스런 서울내기로 돌아갔으니. 내가 나를 되찾았으니, 춘천에서 이제 나는 잘 살 것이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남해안 시·도 여수엑스포 ‘협정’ 기대 크다

남해안 인접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부산시, 경남, 제주, 전남도와 여수시는 오늘 여수에서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 여수세계박람회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광고, 관광, 시민협력, 마케팅, 홍보 등에 세계박람회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된다.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의 기반을 쌓고 남해안권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남해안 인접 자치단체들이 세계박람회 성공과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수도권 못지 않은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고 영호남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상생을 통해 세계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의 경제효과는 엄청나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다.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게 되고 7조원의 부가가치와 10조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3개월 동안 열리는 박람회 관람객도 800여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가장 큰 혜택은 여수가 받겠지만 전남과 부산, 경남, 제주 등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박람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치단체들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여수시와 광양, 보성, 고흥, 진주, 사천, 하동 등 남해안권 기초단체들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한 것도 고무적이다.

4개 광역 자치단체와 여수시는 전략적 제휴를 맺은 만큼 협정을 철저히 실천하기 바란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가 선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고 남해안권 자치단체들이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 반발 부른 미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 축산농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 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 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부칙으로 명문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만으로 국민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시안이 기존 입안예고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고시 강행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극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미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유가 등으로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 쇠고기 수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성난 민심부터 달래야 한다.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위태롭게 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의료 칼럼

임경준

허리·어깨 통증과 신경차단술

어깨 통증은 잘못된 자세와 경추, 내장계통의 질환 뿐만아니라 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 직업적 특성에 따라 생길 수 있다. 허리 통증의 유발요인은 운동 부족이나 자세이상에서 비롯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빈도가 높다.

어깨 통증은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수축·이완으로 인해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통증이 생기는 근근막 통증증후군일 경우가 흔하다. 40~50대에 걸쳐 관절이 굳어져 운동범위가 제한되면서 통증을 초래하는 동결견, 일명 오십견 또는 목 디스크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발요인이 있다.

어깨 통증의 치료는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양쪽 어깨를 앞으로 움츠렸다가 뒤로 젖히는 운동, 양손을 벽에 대고 올리는 운동과 함께 통증 유발점 주사, 각종 신경차단술 등을 같이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은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급성 허리 통증은 2~3주 정도의 안정과 보존적 요법을 거치면 치료될 수 있다.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이를 만성 요통이라고 한다. 치료방법으로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요법과 척추 경막외 신경주사, 경막외강 조영술, 추간 관절 신경 차단술 등이 있다.

척추 경막외 주사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바깥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급성 허리 통증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 경막외강의 유착이나 섬유화가 의심되면 방사선 투시하에 조영제를 주사하는 경막외강 조영술로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유착이 심한 경우는 유착박리술을 시행한다. 척추 사이 관절 이상에는 추간 관절 신경차단술을, 신경근의 자극 증상이 있을 때는 척추 신경근 차단술과 고주파 신경치료를 추가로 시행한다.

통증이 사라진 후에는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한 운동요법을 꼭 실시해야 한다. 허리 통증의 운동요법에는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첫째는 무릎을 구부린 채로 누워 아랫배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 아래를 방바닥 쪽으로 누르듯이 힘을 줘 반듯하게 편다. 서서히 아래 허리와 엉치를 들어올려 5초간 정지한 뒤 풀어준다. 둘째는 편안한 자세로 누운 다음 왼쪽 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양손으로 끼고 가슴에 붙인 채 3~5초간 멈췄다가 원위치한다. 같은 동작을 반대로 5회 정도 반복한다.

허리 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옷을 가볍게 입기 ▲굽 높은 구두 신지 않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몸 가까이에 바짝 대고 다리를 구부려서 들어올리기 ▲물건 양손에 나눠 들기 ▲오래 서 있을 땐 한 발을 약간 높은 발판에 올려놓기 ▲체중을 줄이기 ▲담배 끊기 등이 큰 도움이 된다.

허리 통증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두발로 걸어다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허리 통증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불가피하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통증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허리 통증도 잘 관리하고 조절하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기고

신성수

농업 경쟁력 확보해야

연일 국제곡물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의 악순환으로 ‘애그플레이션’까지 촉발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광우병이 염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연일 급등하는 유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 생존과 직결된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피부에 그리 와닿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공동작성한 ‘지구 규모의 위기’ 보고서를 보면 세계 곡물 재고량은 30년 사이 최저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면적은 오는 2020년 160만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산물의 절대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우려가 높다.

곡물자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 자꾸만 줄어드는 농지면적은 결국 식량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 같은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른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급증하는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경지면적이 감소해 곡물 공급이 크게 달리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국내 식품업체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서민가계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6위 수준에 그쳐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6월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이를 대신해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토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농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국제적인 식량위기를 외면한 조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논·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178만 2천ha로, 전체 국토면적의 18.1%에 달한다. 그러나 농지

우리가 농업을 포기해서도, 소홀히 해서도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회로 봐야 한다. 농업을 살리는 일은 곧 농민을 살리는 일이며, 일자리를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농협의 역할은 지대하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1사1촌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1교(校)1촌’ ‘1종교1촌 자매결연’ 등으로까지 지평을 넓혀나가는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촌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알리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FTA 등 개방파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써야 한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無等鼓

단명 장관

6조 판서(장관)는 평균 6개월 미만. 삼정승(국무총리)은 1년 남짓. 관찰사(도지사)는 1년 미만.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 고급 관리들의 평균 재임기간이다. 국민대 한국학연구소가 진행해온 ‘한국사상관인·관직 DB구축과 관료제연구’ 결과 조선 왕조 각료들의 임기는 매우 짧은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장관급 인사가 잦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다. 즉, 직급이 같은 판서끼리도 소속 부서에 따라 재임기간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형조판서는 연 평균 2.3회 바뀌어 재임기간이 87일에 불과했다. 이와는 달리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는 각각 250일과 237일이었다.

재정을 집행하는 호조판서는 세금을 걷고, 예산을 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므로 당연히 평균 임기가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권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의 경우 역시 일을 파악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야하는 등 업무가 특수했다. 따라서 임금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특별한 부서에 한 번 기용한 사람을 오래 쓰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놓고 인책론이 일고 있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해임안이 제출됐다가 부결된 바 있다.

쇠고기 협상 유관 부처 및 물의를 빚은 장관 경질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 ‘성장통’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치인 장관 입각설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 등을 통해 국민과 자주 접촉해 여론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국민과 소통해 2~3년, 나아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유능한 장관이 많이 나와야 비로소 국민이 편해 진다.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외국인 무료 운전면허교실 열어 농촌 다문화가정 돕자

외국인 신부들이 크게 늘면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많이 정비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운전면허 취득이다.

다문화 가정은 농촌지역에 많다. 농촌은 학교·학원이 집과 떨어져 있어 아이들을 자동차로 통학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을 싣고 다니기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외국인 신부들에게는 운전면허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들은 우리 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매주 창원·김해경찰서에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반 등 외국인 무료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에 사는 외국인 여성들은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 외국인 신부들을 위해 외국인 무료 운전면허교실을 열어주는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언·곡성군 석곡면

이혼 않더라도 간통죄 고소 가능하게 법률 고쳐야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 간통죄가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때 상당수 고소자들은 무척 당혹스러워 한다. “그냥 남편(또는 부인)을 혼찌검 내 정신 차리게 할 의도였는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면 안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또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 장래 생계나 육아문제 등으로 망설이게 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자는 취지로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숙려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이혼을 막고 홧김과 충동으로 벌어질 수 있는 폐해 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민하고 도입한 제도이다.

이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비교하면 간통죄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꼴 아닌가.

이제는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를 바꿔 ‘이혼이 아니더라도 간통죄 고소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한 순간의 실수가 곧바로 이혼으로 연결되지 않게 개선했으면 한다.

▲전혜옥·광주시 동구 서석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사회2부 2200-619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FAX 227-0118〉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6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여론매체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FAX 02-773-9335〉
〈FAX 222-426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